

# 성수

2009 진안군 성수면  
마을조사 보고서

성수면사무소



본 연구는 진안군의 지원에 의하여 (사)생명의숲국민운동 마을조사단이 수행하였습니다.



## 1. 성수의 역사

### 1) 성수에는 성수산이

진안군 '성수면(聖壽面)'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당시 二西面과 一西面을 묶으면서 새로 만들어낸 면 이름이다. 면내에 '聖壽'라는 지명은 오로지 '聖壽山'에만 나타나므로 성수면의 유래는 성수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성수산은 조선시대 중엽에 유형원(柳馨遠)이 편찬한 전국지리지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1656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즉 지지 사찰조(寺刹條)는 "盤龍寺在縣南三十里聖壽山西支"(반룡사는 현에서 30리 남쪽 성수산의 서쪽 줄기에 있다)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聖壽'라는 이름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성수면의 유래가 된 이 산을 왜 '성수산'이라고 부르느냐다. 다른 지명을 제치고 왜 성수산이 면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발탁되었는가 하는 점도 이 문제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聖壽'의 유래당이 전해 내려오는 산은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와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의 경계에 있는 성수산(876m)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산을 '임실성수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산 상이암(上耳庵)에는 고려와 조선의 개국과 관련된 설화가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신라말기 도참설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도선스님이 성수산의 산세가 비범하여 천자를 맞이할 성지인 것을 알고 왕건에게 이 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면 대망을 성취할 것이라 권하였다. 백일기도를 마쳤는데도 별다른 일이 없자 왕건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에 목욕재계하고 다시 3일간 간절히 소망을 빈 끝에 마침내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았다. 크게 기뻐한 그는 그곳에 환희담(歡喜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후 왕건은 태몽의 궁예를 몰아내고 황제가 되어 신라를 복속시킨 뒤 국호를 '고려'라고 고치고 태조가 되었다. 도선스님은 이를 기념하여 그 자리에 '도선암'이라는 암자를 세웠다고 한다.

고려 왕건의 건국설화에 이어 조선건국의 태조 이성계도 이 성수산에 얽힌 건국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고려가 쇠퇴하던 말기, 이성계가 왜구를 섬멸하는 대공을 세우고 남원을 지나 전주로 가던 중 도참설의 대가이던 무학대사는 야심에 찬 그를 도선암에 안내한다. 이성계는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한 끝에 용이 나타나 자신의 몸을 세 번 씻어주는 길몽을 꾀다. 그는 크게 기뻐하여 붓을 들어 그곳 바위에 삼청동(三清洞)이라고 썼다. 그 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이곳에서 하늘의 소리["聖壽萬世"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도선암을 상이암(上耳庵)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어필각(御筆閣)을 지어 자신이 삼청동이라고 쓴 바위를 보존하게 했다고 한다. (임실군 홈페이지 참조)

진안과 임실에는 임실성수산 말고도 네 군데 더 성수산이 있다. 다 같은 한자 '聖壽'를 쓴다. 하나는 진안읍과 백운면, 그리고 장수군 천천면 경계에 있는 성수산(1,059.2m)이다. 흔히 '진안성수산'으로 부른다. 둘은 성수면 도통리와 용포리에 걸쳐있는 성수산(492.5m)이다. 셋은 임실군 덕치면 사곡리와 두지리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임금처럼 의젓하게 앉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성수산이다. 이밖에 임실군 성수면(聖壽面)에 있는 고덕산(高德山·625m)을 성수산이라고도 하는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입산했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 가운데 임실성수산과 고덕산은 왕의 행적과 직접 관련시켜 '聖壽'를 붙인 경우이다. 그리고 임실군 덕치면 성수산은 지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름붙인 경우이다. 하지만 나머지 두 산은 위 경우들과 관련이 없다. 진안성수산은 옛 자료 속에서 미재산(美哉山), 미방산(美方山), 백운산(白雲山), 복주봉(福奏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성수산으로 불리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지도제작자에 의해 그만 성수산으로 개명되고 말았다.<sup>1)</sup>

성수면의 유래가 된 성수산에는 '글미산', '그늘외'라는 토박이이름이 있다. '그늘외'는 성수면 좌포리 원도통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산이 마을의 서쪽에 인접해 있어서 해가 빨리 저물고 그늘도 쉽게 드리워지기 때문이다. 성수면 좌포리 증자마을에서는 이 산을 통상 '글미산'이라고 부른다. 증자마을은 지대가 낮는데다가 산이 마을 남쪽에 가깝게 버티고 서 있어 성수산이 '큰 산'으로 인식된다. '글미'는 '글(大戶)+미(山)', 즉 '큰 산'이라는 뜻을 가진 토박이말이다.<sup>2)</sup> 성수산은 이밖에 '생남산(生男山)', '망산'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토박이이름을 가진 산에 성수산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데는 임실성수산이 중세 왕조의 건국신화를 안고 있는 데 대한 부러움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산들이 성수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같은 까닭에서일 것이다. 이밖에 성수면이 탄생할 당시 좌포에 두었던 면소재지를 성수산 아래 안평으로 옮기면서 손쉽게 성수산의 이름을 빌 수 있었음적도 하다. 어쨌든 진안군 '성수면'의 이름이 '성수산'에서 유래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 2) 고대의 흔적

최근 확인된 정천면 모정리 진그늘 유적은 진안군은 물론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이다. 성수면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유적은 신석기시대 생활유적으로, 성진강이 흐르는 좌포리 봉좌 앞들에서 발굴됐다.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유구(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5기가 조사됐다. 신석기시대 퇴적층에서 빗살무늬토기조각 등이 출토돼 농경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한편 좌포리 봉좌마을 웃말에서는 토기류가 주종을 이루는 원삼국시대 유물도 발굴됐다.

## 3) 성수의 변천과정

삼국시대 이전의 성수면의 역사를 직접 알려주는 문헌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성수면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고려 인종 23년, 1145년)가 있으나 백제 말기부터의 일을 전하고 있으며, 그 기록도 고을의 설치와 폐지, 이름의 변경 그리고 수령의 배치 여부 등에 관한 단편적인 것으로 이러한 실상은 조선 말엽까지의 모든 기록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진안군에는 당시 馬突縣, 難珍阿縣, 勿居縣이 있었다.<sup>3)</sup> 馬突縣은 지금의 성수,

1) 최규영(2006), 우리고장 地名이야기, 鎭安文化, 진안문화원.

2) 도수희(1999), 한국지명연구(이회문화사).

3) 馬突, 難珍阿를 '마돌, 난진아'로 읽어서는 안 되므로 차자(借字)표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馬靈, 鎭安(月浪), 淸居'도 '마령, 진안(월령), 청거'로 읽어서는 안 되므로 이 또한 차자(借字)표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마령, 백운면 지역이고, 難珍阿縣은 지금의 진안읍, 부귀면, 상전면 지역이며, 勿居縣은 지금의 용담면, 동향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지역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성수, 마령, 백운 등의 지명은 없고 이 지역을 포괄해 馬突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람 이름, 물건 이름, 마을과 산천 등의 소지명들이 있었지만, 『삼국사기』의 저자는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다.

옛날 삼국의 지명은 서로 사뭇 달랐으므로 신라는 통일을 이룬 뒤에 나라 안의 모든 지명을 같은 방식으로 통일할 필요를 느껴 경덕왕 16년(757년)에 漢字 2자로 고치게 되었다(이로써 우리나라에 漢字 지명이 생기게 된 것이다).<sup>4)</sup> 이로 인해 馬突(馬等良·馬珍)은 馬靈으로, 難珍阿는 鎭安으로, 勿居는 淸居로 적게 되었다. 이때까지도 성수는 馬靈 땅의 한 부분이었다.

한편 剛朱所라는 고을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강주소는 『삼국사기』와 『고려사(高麗史)』(문종 1년, 1451년)에는 보이지 않다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년)에서 “所—剛朱”라 하고 이소가 “馬靈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은 “剛朱所는 馬靈에 있다”고 똑같이 언급하되, 馬靈廢縣 이후 현내의 지역을 邑內, 馬靈, 一西, 二西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점은 강주소가 성수(즉 一西, 二西)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부정하는 증거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강주소가 馬靈縣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무엇을 하던 지역이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마령폐현과 함께 비로소 성수(즉 一西, 二西)와 馬靈이 분리된다. 분리 이전까지 성수면의 역사는 馬靈縣의 역사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고려사』에서 엿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馬靈縣은 본디 백제 馬突縣(一云 馬等良·馬珍)인데, 신라 경덕왕 때 개명하여 任實郡의 鎭縣으로 삼았다가 고려 초에 全州에 來屬했다. 또한 고려 초 鎭安縣을 전주에 來屬시켜 뒤에 監務를 두었는데 공양왕 3년에 馬突縣을 併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성수면의 역사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찾을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태종 13년(1412년)에 馬靈을 폐현하고 鎭安縣에 흡수 통합했다. 이로써 성수, 마령, 백운 지역을 아우르던 馬靈縣은 사라지고, 옛 馬靈縣은 각각 馬靈, 一西, 二西, 南, 一東 다섯 개 면으로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성수면의 경계는 이때에 비로소 윤곽을 드러냈다.

조선시대에는 면제가 성립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일서면과 이서면이 鎭安縣의 다른 14개 면과 함께 실려 있다. 이어 『여지도서(輿地圖書)』(1765년) ‘坊里(방리)’ 조에는 일서면과 이서면의 호구수와 남녀인구수가 적혀있다.

조선시대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적은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에는 처음으로 里·洞의 지명이 등재된다. 이에 따르면 일서면에는 求神里, 念北里, 矢洞里, 伐林亭, 佐山里, 佳樹里, 內弓項里, 外弓項里, 新里가 있었고, 이서면에는 飲水洞里, 中坪里, 散珠里, 紙谷里, 曾子洞里, 彥溪里, 浦洞里, 固草味里, 中基里, 達吉里, 利洞, 左右浦里, 方二洞里, 山所洞里가 있었다. 여기에서 伐林亭, 利洞, 方二洞里 등은 오늘날 그 흔적을 찾기 힘든 이름들이다. 따라서 이 지명들이 어느 里·洞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에 이루어진 행정구역통폐합<sup>5)</sup>에 따라 일서면과 이서면이 병합된다. 여기에 임실군 하북면 횡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외궁, 구신, 신기, 좌산, 중길, 좌포, 용포, 도통의 8개리로 개편했다. 면내에 있는 성수산을 따라 면 이름을 성수면이라 했으며, 이때 비로소 ‘성수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독립된 면이 탄생했다.

4)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新訂版(태학사).

5) 府郡統合令, 府令 제111호, 1913. 12. 29. 공포.

성수면의 변천



1-001 백제시대



1-002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이후



1-003 조선 태종 13년(1412) 이후



1-004 1914년 이후 일제의 군면통폐합 이후

지명 및 지도	제작년도	내용
삼국사기	1145년	任實郡은 본디 百濟의 任實縣인데 新羅 景德王 때 州郡으로 개편하였다. 領縣이 둘 있으니, 馬靈縣은 본디 百濟의 馬突縣인데 新羅 景德王 때 개명하여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
고려사	1451년	馬靈縣은 본디 百濟의 馬突縣(一云 馬珍 一云 馬等良)인데 新羅 景德王 때 개명하여 任實縣의 領縣으로 삼았다가 高麗 초(全州에) 來屬시켰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본조太祖 원년壬申에 비로소 鎭安監務를 두어 馬靈縣을 겸하게 하였다.太宗 13년壬辰에 馬靈을 혁파하여 屬縣으로 하였다. 옛 屬縣이 1이니, 馬靈은 본래 百濟의 馬突縣이었었는데, 新羅에서 馬靈縣으로 고쳐서 任實縣의 領縣으로 삼았고, 高麗 초에 全州의 任內로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一西 : 처음이 30리 끝이 40리다. 二西 : 처음이 40리 끝이 50리다.
동국여지지도	1656년	左山院 : 현의 남쪽 53리에 있다.
비변사인방안지도 호남지도	1739~50년	左山院 : 현의 남쪽 53리에 있다.
비변사호남지도	1750년	一西面 二西面 盤龍寺
해동지도	1750년대	西面 : 처음이 40리 끝이 50리다. 一西面 二西面 在山院*. 현의 남쪽에 있다.
여지도	1736~67	盤龍寺 西面 盤竜寺
여지도서	1757~65년	西. 一西面 : 官門으로부터 40리. 호구수 395호, 남 596명, 여 812명. 二西面 : 官門으로부터 30리. 호구수 446호, 남 957명, 여 1,018명. 盤龍寺는 현의 서쪽 40리 聖壽山 아래에 있다.
지승	18세기 후반	西面 盤龍寺
호구총수	1789년	一西面. 求神里 念北里 矢洞里 伐林亭 佐山里 佳樹里 內弓項里 外弓項里 新里 호구수 332호 1,389명 남 651명 여 738명 二西面. 飲水洞里 中坪里 散珠里 紙谷里 曾子洞里 彦溪里 浦洞里 囹草味里 中基里 達吉里 利洞 左右浦里 方二洞里 山所洞里



		호구수 462호 2633명 남 1240명 여 1393명
		一西面. 현의 서쪽 40리에 있다.
진안현읍지	18세기 후반	二西面. 현의 서쪽 30리에 있다. 盤龍寺. 현의 서쪽 40리 聖壽山 아래에 있다.
광여도	19세기 전반	西面 盤龍寺
여도비지	1856년	一西面. 처음이 30리 끝이 40리다. 二西面. 처음이 40리 끝이 50리다.
동여도	19세기 중반	一西 二西 盤龍寺
대동지지	1866년	一西面. 처음이 30리 끝이 40리다. 二西面. 처음이 40리 끝이 50리다. 盤龍寺
전라도지도	1872년	一西 : 左山村, 念北村 30리, 求臣里 35리 二西 : 中軍村 30리, 浦洞, 左浦 20리
진안지 舊本	1924년 이전	左山院. 현의 남쪽 50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攀龍寺. 성수산에 있다. 聖壽面. 군의 서쪽 30리에 있다. 元二西面, 一西面 전부를 합하였다. 佐浦里-元鳳村, 上佐里, 下佐里, 內佐里, 山水洞, 梨谷里, 陽化里, 竝山幕, 曾子洞, 龍沼里를 합하였다. 龍浦里-元盤龍里, 浦洞, 上回, 松村里를 합하였다. 道通里-元道通里, 紙谷里, 木洞, 上, 下散珠里, 中坪里, 居士谷, 飲水洞을 합하였다. 外弓里-元, 上, 下外弓里, 新村, 古味洞, 店村을 합하였다. 佐山里-元佐山里, 上, 下佳水里, 松村, 中基, 上村을 합하였다. 新基里-元內谷, 汶水洞, 平地里를 합하였다. 求臣里-元求臣里, 長承洞, 上, 下念北里, 矢洞을 합하였다. 聖壽面事務所는 군의 서쪽 30리 좌포리에 있다. 지난 丁巳年 (1917년)에 기와집 6칸을 건축하였다. 면장 1인과 서기 5인, 소사 2인이 있다. 左山院은 군의 남쪽 50리에 있다. 盤龍寺는 군의 서쪽 40리 성수면 용포리 성수산의 아래에 있다. 지금은 없어지고 지소가 되었다. 盤龍寺. 성수산의 아래에 있다.
조선환여승람	1937년	忠木亭. 성수면 영북리에 있다. 정자 옆에는 본디 천년 묵은 나무가 있었는데 지난 경술 7월 愁雲이 참담하고 쓸쓸한 바람이 처절하게 불때 마치 북을 향하여 엮드려 절하는 듯한 모양

---

을 보인 뒤 3년을 앞을 피우지 않다가 다시 활짝 피웠다. 이를  
온 마을이 이상하게 여기고 여기에 정자를 세우고 이 이름을  
붙였다.

三友堂. 성수면 목동리 탐진 최기호, 성호, 명호 삼형제가 건  
립하고 여기에 살면서 우애를 돈독히 했다. 송병선의 기문이  
있다.

---

\* 在山院: 左山院의 誤記



중길리 만덕산에서 숲체험 활동을 가졌다. 제6회, 전래놀이와 민속놀이 체험, 제7회, 종이인형 만들기 와 동화인형극, 제8회, 탈만들기와 탈놀이, 제10회는 종이봉지 공주 그림자극 감상과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가졌다. 2009년에는 천연염색, 도예체험 수업을 하였고, 6월에는 '내고장 성수를 알자'라는 주제로 수업을 가졌다. 놀토학교는 학교나 학원의 주입식 교육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놀토학교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데는 독서와 논술을 지도하는 박미숙(성수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자)씨와 미술취미를 지도하는 윤미란(성수면 평생학습지도자)씨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가 있었다. 놀토학교는 성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성수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예산과 인력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서 더 의미가 있다.

### (3) 마을 도서관

성수면 마을 도서관은 원래 외국초등학교 뒤편 별관에 있었다. 2007년에 외국초등학교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었고, 2009년에 학교 2층의 마을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을 하였다. 교실 두 개를 합쳐 만든 공간에 40명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다기능방도 마련했다. 책장에는 만여 권의 책이 뽐뽐하게 꽂혀 있다. 전집보다는 각기 다른 장르의 다양한 도서들이다. 교과서와 연계된 목록으로 어린이책 85%, 성인을 위한 책은 15%의 비중을 차지한다.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서 3천권을 기증했고, 네이버 해피빈에서 도움을 줬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자율적으로 책을 고를 수 있고,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담당 사서가 상주하며 도서관을 관리한다. 시스템이 디지털화 된 덕에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증을 만들 수 있고,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다.

도서관이 문을 열기 전에는 아이와 주민이 도서관에 가려면 진안읍까지 나가야 했다. 외국초등학교 마을도서관 개관으로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44 위원장 김택



2-045 주민자치센터 개관식 2005년 7월 15일

## 2009 진안군 성수면 마을조사 보고서

---

인쇄 2010년 5월

발행 2010년 5월

펴냄 (사)생명의숲국민운동 마을조사단 - (사)마을리서치공동체

전북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682-1

josadan@naver.com

전화: 063)432-7924

팩스: 063)432-7924

---

본 마을조사 보고서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

[www.forest.or.kr](http://www.forest.or.kr)

서울시 성동구 성수 1가 1동 656-1693번지 풍성빌딩 2층

대표전화 02)735-3232